# “기적의 임실대변혁 성공신화”

## 임실군 최초 3선 심민 임실군수, 12년 대장정 마무리

심 민 임실군수가 지난 26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퇴임식을 끝으로 12년간 이어온 군정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군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축복 속에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박희승 국회의원과 한득수 군수 당선자를 비롯한 지역 주요기관·사회단체장·전현직 공직자,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임실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심민 군수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퇴임식은 재임기간 주요공적 소개와 공로패 전달,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난 12년간 임실군의 눈부신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온 여정을 함께 돌아보며 아낌없는 박수로 이어졌다.

심 민 임실군수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임실군수로 취임한 이후 민선 7기와 8기까지 연이어 군민의 선택을 받으며 12년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 왔다.

심 민 군수의 재임 12년은 임실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낸 도약과 혁신을 이끈 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

대표적으로 임실N치즈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임실N치즈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성장시켰다. 특히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 조성으로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탄생시키며 임실군을 연간 수백만명이 찾는 전북 대표 관광도시로 탈바꿈 시켰다.

이날 퇴임사에서 심민 군수는 “지난 12년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임실의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온 가장 값지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임실군 최초의 3선군수라는 영광을 안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정의 모든 성과는 결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며 “군정을 믿고 응원해주신 군민여러분과 언제나 현장에서 함께 뛰어준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소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실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우뚝 섰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더 큰 발전과 번영을 이뤄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퇴임식에 앞서 심민 군수는 이른 아침 소충사를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뜻을 기렸으며, 이후 군청 전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또한 청사 앞마당에 기념식수를 식재하며 12년 군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했다.

한편, 심민 군수는 2014년 민선6기 출범 이후 12년동안 임실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왔으며,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와 성과를 뒤로한 채 명예로운 퇴임으로 군정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 취임식 7월 1일 개최

순창군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민선9기 제51대 최영일 순창군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최근 공직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임행사 간소화 기조에 맞춰 의전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군민과 소통하며 앞으로의 군정 비전을 공유하는 실용적인 행사로 마련된다.

특히 군은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라는 민선9기 군정비전 아래 형식적인 축하행사 대신 지난 4년간의 군정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과 함께 논의하는 타운홀미팅 방식의 공감토크를 중심으로 취임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는 오전 9시 제일고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 등이 진행된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군민 400여 명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민선8기 주요 성과와 민선9기 핵심 공약,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취임식을 통해 민선9기 군정비전을 군민과 공유하고, 앞으로 4년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순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찾은 파라과이에 ‘춘향 씨감자’ 생산 체계 선보여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가 중남미 파라과이에 ‘남원 춘향 씨감자’의 선진 생산 체계를 선보이며 국제 농업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

센터는 지난 25일, 남원을 방문한 파라과이 농목축부(MAG) 농업 차관 후안몰리나스벨렌을 비롯한 방문단 20명을 대상으로 센터 내 주요 시설과 현장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방문단에 남원의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농가의 생산비와 종서량 절감에 기여하는 남원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부각시켰으며, 파라과이 방문단은 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조직배양실과 씨감자 생산포장을 견학하고 실제 감자 수확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남원시 씨감자 생산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26일 민선 8기 마무리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4년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에게 진심 어린 소회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지난 4년 공직자 헌신에 감사”

## 최경식 남원시장, 민선 8기 마무리 간부회의 주재

최경식 남원시장이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지난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마무리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4년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에게 진심 어린 소회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주요 시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선 9기 시정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업무 인수인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 특히 그동안 시정을 함께 이끌어온 퇴임 국·과장 및 읍·면·동장들의 소회를 함께 듣는 뜻깊은 시간으로도 채워졌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남원시 공직자분들이 지난 4년간 보여준 수준 높은 지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잠재된 역량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어준 덕분에 민선 8기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취임 당시 약속했던 ‘남원시 공직자로서의 자존감 고취’를 언급하며, “우리 스스로가 행정의 한계를 깨고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타 지자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등 남원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증명해 낸 것이 가장 성공적이고 보람찬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행정의 중심이 언제나 시민이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모든 정책과 판단의 기준을 시민의 삶에 두고, 마지막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퇴임 이후의 행보에 대해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 그대로 우리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차분하게 고민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물론, 퇴임 후에도 전·현직 부시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선후배들과 소탈하게 남원의 미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공직자들의 ‘건강’을 가장 신신당부했다. 최 시장은 “사회적 지위나 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라며, “격무속에서도 공직자들이 스스로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격려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의료인·대학생 참여 ‘맞춤형 농촌재능나눔’ 실천

순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의료인,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군은 지난 26일 적성면 체육관에서 (사)생활안전보건연합, 전주비전대학교, 원광대학교 등과 연계해 주민 맞춤형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 보건의료원의 감염병 및 치매예방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특히 외부 전문 의료진과 보건 전문인력,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기초 건강검사와 건강상담, 치매 예방 프로그램, 범죄예방 교육, 소방안전 체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침수 피해 예방 대대적 준설 작업 추진

남원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홍수기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중계펌프장과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월 중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침수 취약 구역과 저지대 지역의 중계펌프장 7개소 및 주변 하수관로 약 10㎞ 구간을 집중 준설 대상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한다.

시는 작업을 통해 하수관로 내 쌓여 있던 토사, 슬러지, 낙엽 등 대량의 퇴적물을 제거함으로써 홍수기 원활한 배수 흐름을 확보하고, 퇴적물 부패로 인한 여름철 고질적인 악취와 해충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준설 작업 외에도 홍수기 전까지 중계펌프장 내 수문, 펌프 등 유수지 시설물에 대한 가동 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경찰서, 일일이(112) 찾아가는 순찰활동 시동

임실경찰서(서장 백형석)는 최근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중인 일일이(112) 찾아가는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1차 예방 홍보에 그치지 않고, 강력,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외근 형사팀이 현장 활동시 2차로 중첩 점검하는 임실경찰서의 특수시책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외근 형사들이 관내 전통시장과 인근 상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설명하고, 스마트폰 설정에 익숙하지 않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족, 친지 등 연락처를 저장하여 모르는 번호나 의심스러운 전화는 되도록 응대하지 않도록 홍보함으로서 범죄 전화를 물리적으로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